

〈오늘도 희망이다 8〉 나성순복음교회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땅의 모든 끝 향해 하나님 선포하라



이민교회. 거친 광야 같은 이민생활을 위로받는 곳. 그런데 이 교회는 성도들을 향해 “여호와 삼마(에스겔 48:35),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면서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재촉한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이사야 45:22)”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교지로 나가라고 한다. 10년 전, 남미 선교사 출신이 담임목사로 왔을 때 진작 알아봤어야 했다.

나성순복음교회가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인 7월 2일부터 4일까지 UC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10.10. 미션 전교인 수련회를 열었다. 해외 10개 선교지와 국내 10개 교회를 개척하거나 후원하겠다는 선교 사명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알리는 수련회였다. 요즘 한인교회가 자기 한 몸 건사하려면 부흥회를 해도 재미있거나 위로를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좀 더 강력하다 싶어도 ‘영적 대각성’을 넘기 어렵다. 선교나 전도라고 하면 웬지 철 지난 구호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그 주제를 쉽게 내걸지 못하는 이유는 안 그래도 지켜있는 성도들에게 ‘직접적 행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나성순복음교회는 3년 전, 레의 애로우헤드에서 아들람 공동체 전교인 수련회를 했다. 그때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라는 선교 구호를 선포했다. 그리고 예배 때

마다, 모일 때마다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더니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 갔다. 해외 선교사들을 수십 명씩 초청해서 선교대회를 열기도 하고 구역예배 헌금을 모아 선교지로 보내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포함해 1년에 10여 팀 이상이 남미, 아시아 등 여러 나라로 단기선교를 나간다. 선교지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책을 컨테이너 단위로 모아서 보내는 일도 이젠 예사다. 국내도 소홀하지 않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만 골라서 전도하는 새생명 전도축제도 1년에 몇 번씩은 한다. 지역사회 노인 세대를 섬기는 실버드림대학, 학생들을 위한 토요일학교, 미용 전문인을 양성하는 이미용선교학교도 하고 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스스로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열기 힘든 남가주의 작은 지역교회를 섬기고자 ‘초교과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자원봉사자와 재정을 공급하며 ‘상생하는 사역’에도 뛰어 들었다. 10.10. 수련회에 맞춰 10.10. 미션을 시작한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셨다. 수련회에서 진유철 담임목사는 “3년 전에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비전이 선포됐다면, 이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함으로 열매 맺을지 결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도전했다.

진 목사는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

에 물려 죽었지만 뱀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다”면서 “광야 같은 이민생활이지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신도 살고 남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생명을 살리는 에스겔 47장의 환상과 함께 48장의 여호와 삼마 개념을 연결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도 계신다. 교회를 피난처나 도피처로만 생각하지 말고 담대히 교회 밖으로 나가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약 670명이 등록했다. 이 중 청년부가 약 80명, 젊은 부부가 14쌍, 중고등부가 약 80명 정도로 젊은 층의 참여도가 높았다. 진 목사가 총 4번의 전체 집회를 인도했으며 영아, 유치, 유년부는 선교를 주제로 VBS를 진행하고 EM은 아프리카 기니에서 사역하는 조슈아 리 목사를 강사로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했다. 그 외 시간에는 교회 부서별 선교 결단과 나눔의 시간, 교구 대항 운동회도 있었다.

이 교회는 2시간 가까이 차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뺄 세계 수련회를 해 놓고 마칠 때 한마디 더 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순복음답다. 정답이다. 김준형 기자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미주 관객 수 1만명 돌파!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연.장.상.영. 결정!

장소: CGV Cinemas Buena Park
 주소: 6988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기간: 7월 6일 ~ 7월 20일 목요일
 문의전화: (714) 252-6826

▶ 상영시간 (하루 7회 상영)
 9:30AM / 11:30AM / 1:30PM / 3:30PM
 5:30PM / 8:00PM / 10:30PM

기획/제작 **CGNTV**
 주관 **CGNTV America**
 후원 **두란노** **LOGOS**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관람 후기를 보내주세요.
 영화 관람 후기를 보내주시면,
 선정된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일: 7월 28일 (금) 까지
 보내실 곳 - 이메일: cgntvusa@gmail.com
 우편주소: 616 S Westmoreland Ave #408
 Los Angeles, CA 90005

선물내용: 빛과 소금 1년 정기구독권 (10명)
 빛과 소금 6개월 정기구독권 (5명)
 생명의 삶 6개월 정기구독권 (5명)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책 (10명)

7월 6일 ~ 7월 20일, CGV 부에나파크 연장상영

내레이션: 하정우 (영화배우)



김권수 목사가 선교 여행 경로에 따라 사도 바울이 집필한 서신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아! 바로 이거였구나!”

김권수 목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세미나>

성경이 드라마처럼 재미있다면? 이게 뭐말인가 싶겠지만, 김권수 목사의 세미나에 참석해 보면 “성경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7월 10일 윌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세미나”에는 100명 이상의 목회자 및 신학생, 성도들이 참석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소 긴 시간 진행된 세미나였지만 김권수 목사의 강의를 따라가며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오전에는 구약, 오후에는 신약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다. 김 목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대하드라마”라고 표현하며 역사 순서에 따라 하나 하나 퍼즐을 맞추듯 강의했다.

김 목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재미 없죠?”라고 묻자 청중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김 목사는 사도 행전을 펼친 후,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를 먼저 짚었다. 스크린 위 지도에서 바울이 지나간 곳이 표시됐다. 김 목사는 그곳에서 바울이 겪은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찾아서 설명해 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왜 그런 주제로 그런 어법을 사용해 그런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나자 이미 서신서 대부분이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연결됐다. 서신서 강의가 끝난 후 김 목사가 다시 물었다.

“여러분, 서신서 재미있죠?”

“네.”

그러나 이 성경 세미나의 최종 목적은 그저 성경을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읽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각각 다르지만 그 성경을 기

록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신앙 생활의 교과서와 같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관점에서 봐야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성경 전체를 개괄적으로 한 번에 맥을 짚은 것이다. 김 목사는 성경 전권을 이런 관점으로 60시간 동안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오전 8시 ANC온누리교회에서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문의) dkkim523@gmail.com (전화) 818-383-7926



제2회 사랑의 결혼식 모습

남가주교협, 미주 한기총 제2회 사랑의 결혼식

경제적 어려움 겪는 동포 격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재울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회장 류당열 목사)가 제2회 사랑의 결혼식을 거행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한인 부부를 위해 교계 단체가 함께 결혼식을 열어준 것. 지난 4일은 독립기념일 연휴였음에도 100여 명의 친지와 목회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종용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가 사회를 맡았고 홍성관 목사(남가주교협 총무)가 축복기도를 했으며 한기총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가 주례했다. 류당열 목사가 결혼사약을 받았으며 김재울 목사가 축사한 후 차기학 목사, 전재학 목사가 축가를 불렀다.

모든 행사는 류당열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제6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 열린다

성경적상담학회 미주지부 주최로 제6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6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주제는 ‘성경적 상담과 내적 치유’이며 장소는 애나하임에 있는 미국인 교회인 코너스톤교회(4905 E. La Palma Ave. Anaheim, CA 92807)

다. 강사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며 성경적상담학회 회장인 전형준 교수가 맡는다. 또 주식회사 농심의 CEO를 지냈던 신재덕 박사가 특강을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강의 핸드북이 제공되며 소정의 과정을 거쳐 기독교 상담사 자격이 주어진다. 문의) 714-864-7540



사무실 개원식을 마친 후 현판식도 이뤄졌다.

기독한의사협회 사무실 개원... 사랑방 역할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가 지난 7월 1일 오후 12시 30분 올림픽 길과 세라노 길에 위치한 빌딩(충효대권도)에 미주기독한의사협회 사무실을 개원했다. 이 사무실은 재개원한 약손한의원과 함께 사용한다.

이날 ‘약손한의원 및 미주기독한의사협회 사무실 개원식’에는 협회 임원과 이사들이 참석했고 박성근 목사(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가 예배를 인도했다.

협회는 이 사무실을 한의사들의 사랑방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사무실을 개방해 저소득층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213-500-6393

LA기윤실, 건강한 교회 위한 기획 세미나 개최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건강한 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설교, 교회 정치, 재정, 교회론, 이민교회, 교회 갈등 등 6가지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세미나가 열린다.

먼저 7월 29일에는 “기복신앙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제목으로 조주현 목사(기윤실 간사)가 강의하며 8월 5일 “교회 정책 결정 구조와 운영”이란 제목으로 박문규 학장(기윤실 대표), 8월 12일 “올바른 교회 재정”이란 제목으로 허성규 교수(기윤실 실행위원), 8월 19일 “건강교회

의 신학적 배경”이란 제목으로 권연경 교수(숭실대 기독교학과), 8월 26일 “이민교회의 특성과 건강성의 지표”라는 제목으로 송병주 목사(선한침지기교회), 9월 9일 “갈등 예방과 분쟁 해결”이란 제목으로 안재엽 변호사(컴패션 로그룹)가 각각 강의한다.

장소는 CIU 강당(3130 Wilshire Blvd #303 Los Angeles CA 90010)이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세미나를 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문의는 LA기윤실(전화 213-387-1207, 이메일 email4laccem@gmail.com)로 하면 된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장미경 찬양집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1-2)

7/2(일)	주성선교회	7/26(수)	토론프로교회
7/5(수)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7/28(금)	주님의교회 (벤추라카운티의 따우전옥스)
7/9(일)	애너하임한인장로교회	7/30(일)	남가주사랑의교회 (현금특송)
7/16(일)	LA선교교회	7/31(월)	한국 출발
7/18(화-25(화))	GA, SC		

장미경

Profile & Ministry

서울음대 성악과 졸업
2002년 '하나님의 손길' 앨범 발매
2004년 '하나님의 약속' 앨범 발매
2008년 일본어음반 '하나님의 손길' 과 '하나님의 약속' 발매
미주 미국교회와 한인교회 대상 찬양사역
국내외 여러 단체와 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 활발히 활동 중
농촌교회 미자립교회 찬양집회 자원봉사

찬양사역에 관심있는

교회 또는 공동체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장미경 집사
홈페이지 www.mickiepark.com
전화 010-2224-1339 / +1-714-889-8842(미국)
E-mail mickiepark91@hanmail.net

장미경 집사는 천사의 목소리를 지닌 맑고 고운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정통 클래식 음악 수련을 받았지만 영적 교감을 더 소중히 여기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녀의 찬양은 미국과 한국등지에서 영혼의 깊은 울림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낮은 곳의 이웃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노래로 전하는 찬양 전도사입니다. 그녀의 찬양으로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십시오.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





4박5일간 나성한미교회에서 카이로스 코스가 진행됐다.

“선교적 삶을 구체적으로 배워요”

카이로스 코스 선교 훈련 진행돼

부흥이나 세미나에 참석해도 왜 성도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바뀌지 않을까?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창세기부터 세상 끝날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배워 주님의 제자로의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 특별한 '카이로스'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난 7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나성한미교회(신용환 목사)에서 진행된 '카이로스 코스'는 성경적, 역사적, 전략적, 문화적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일관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 한가운데 어떻게 통합시키는지 알려주었다.

카이로스 코스에 참석한 선한정 지기교회 김명구 목사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성한미교회 김영호 장로는 "이 코스를 통해, 선교는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기도로 돕고 보내는 것 이란 단순한 구조를 넘어 성경적, 역사적, 전략적인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카이로스 코스에는 강사 대신에 먼저 코스를 이수한 15명의 조력자들이 함께했다.

앞서 미주에서 열린 카이로스 코스를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게 된 한 성도는 "목사님들 부흥이나 훌륭한 강사들의 강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돌아보니 내 삶이 바뀌진 않았다. 카이로스를 통해서 제 삶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번 카이로스 코스 책임조력자

를 맡은 권오준 선교사는 "카이로스 코스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사는 주변이 선교지란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면서 "선교적 교회로 체질을 바꾸길 원한다면 카이로스 코스가 좋은 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로스 코스는 1994년 필리핀에서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어, 30,000여 명의 필리핀 성도를 훈련시켜 필리핀이 오늘날 세계 10위 선교사 파송국이 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현재는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40여 개의 언어로 이 코스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호주, 독일, 그리고 북미 지역은 캐나다를 시작으로 오레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와 앨라배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영어와 스페인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문의) fishbonekwon@gmail.com

이인규 기자



이날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박용만 탄신 및 한국인 이민운동 1주년 기념식

박용만 기념재단(회장 박상원)은 5일 오전 11시 한인타운에 위치한 제이제이그랜드 호텔에서 박용만 탄신 136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1000만 한국인 미국 이민 운동 1주년도 같이 기념했다.

오병익 목사(1000만 한국인 미국 이민 운동 총재)는 "한인 이민자들은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를 심으면서도 조국의 독립에 앞장서고 교육에 힘썼다"면서 "한 세대를 지나 하남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1000만 이민자의 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국가방위군(USNDC) 제8사단 임기수 사단

장이 장군으로 승진하며 박상원 부사단장이 미 국가방위군 이사회 의결 장군 증서 전달식도 가졌다. 임기수 장군은 "미국의 안보와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원 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양성전 목사(대한민국 국회 지도목사)의 기도, 국민의례, 김희창 목사(한국 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 공동회장)의 환영사, 오병익 목사의 인사, 임기수 장군 증서 전달, 하워드 리 총장(퍼시픽법학 대학원)의 축사 후에 최학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인규 기자



뮤리에타장로교회가 참전용사를 초청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뮤리에타장로교회 6.25 참전용사 초청

지난 6월 25일 뮤리에타장로교회(담임 김성수 목사)는 6.25 참전용사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최겨원, 유시중, 김사목, 김계훈, 김광임, 김상

호, 진봉운, 임형택 등 참전용사 8명에게 허신 장로가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김만욱 장로가 자신이 운영하는 스시보트 일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셀비 권 기자

맘&몸 치유 세미나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배영준 목사 인도로 필레에 위치한 하나님나라선교기도원에서 '맘&몸 치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 말씀처럼 이 땅에서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다가 하늘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강사 배영준 목사는 맘&몸 치유(쿰란출판사), 성령로그인



강사 배영준 목사 부부와 기도원을 섬기는 송진태 목사 부부

(쿰란출판사) 등을 저술했다. 하나님나라선교기도원 송진태 목사는 십여 년 전 나성교회에서 지휘자, 송성애 목사는 피아노 연주자로 사역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연금 해결을?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리 정

현대 HYUNDAI
철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자제적으로 청소년 수련회가 없는 교회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입니다.

남가주 지역교회를 섬기는 제2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참가신청 QR CODE)

- 기간** 2017년 7월 24일(월) - 26일(수)
-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 대상** 한인 중, 고등부 학생(6~12학년)
- 모집기간** 7월 9일(주일)까지 (선착순 120명)
- 등록비** 무료
- 강사** 주강사 - David Kim 목사 / 간중 - 최유진 KCCC 간사 / 찬양집회 - 이실라 찬양사역자
- 신청방법** www.lafgc.com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문의**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Tel. 951-928-4415)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25>

청년이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서자!

우리 교회 대학생을 포함해 여러 교회에서 17명의 청년들이 지난 5월 10일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부터 미국 전역을 3개 조로 나누어서 2개월간 도시들, 마을들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다.

거리에서 만난 노숙자에게도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불신자가 정을 방문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게 미국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특히 청년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전국을 다녔다. 그들 중에는 직장을 다니다 장기 휴가를 내고 참여한 청년, 대학 생활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참여하고 싶어서 온 청년도 있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먼저 세우고, 그 땅에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전도했다. 병자를 만났을 땐, 그 병자의 쾌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면서 전심으로 구했고 믿음을 갖고자 하는 같은 세대의 청년들과는 친구가 되어 주며, 격려하고 교회로 인도했다. 그들을 접한 각 지역의 다민족 교회 목사님들은 순수하게 믿음의 열정을 갖고 자신들의 여름방학 기간을 송두리째 헌신하며 전도 사역을 하는 그들에게 감동했고 많은 교회의 청년들이 도전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묻는다. “그런 여름방학 전도 대장정이 매년 있냐”고. 그렇다. 마음을 같이 하는 청년팀들이 이미 훈련되어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그들과 연합하여 충분한 시간 영적 교제와 팀 사역 훈련을 받으며 1년을 준비한다. 용돈을 절약해 2개월 간의 사역비를 만들고 그들 가운데에서 팀장을 세우고 팀장의 리더십에 모두가 협력하는 아름다운 팀워크를 가져야 긴 시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시작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우리 청년들이 다민족 교회 청년들 앞에서 멋지게 영적 리더십을 나누며 인도해 가는 모습을 상상하여 보라. 그렇게 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교회가 청년 세대들을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일으키는 데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도하자.

나는 교회들에 청년이 없다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들을 지도할 참교육자가 적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청년들에게 교회가 가야할 길을 온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한 교회와 가정 이 더 걱정이다. 청년을 일으켜 그들이 해야 할 사역을 제시하는 영적 안내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총력을 기울이자.



청년전도팀이 한 미국인의 초대를 받아 교제했다.

아는 만큼 북한 위해 기도할 수 있다

그날까지선교연합, 나성순복음 · 나침반교회에서 통일 토크쇼

그날까지선교연합(UTD-KCC)이 7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와 7월 23일(주일) 오후 5시 나침반교회(민경영 목사)에서 통일포럼 토크쇼 및 통국 기도회를 연다.

이 행사에는 강철호 목사, 강철환 대표, 김아라 자매 등 탈북자들이 출연한다. 강철호牧사는 탈북민 제1호 목사로서 현재 탈북민 출신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다. 강철환 대표는 북한 전략센터 소장이며 조선일보 북한전문기자로 활동 중이다. 김아라 자매는 채널A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해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간증을 할 예정이다. 이

3명의 탈북자와 함께 북한인권운동가인 고신대학교 임창호 교수가 토크쇼에 참여한다. 또 소프라노 최정원이 특별 찬양을 부른다.

그날까지선교연합의 대표 손인식 목사는 “지난 2016년 한국의 경산중앙교회에서 열렸던 통일포럼 토크쇼에 2,800명 청중이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면서 “북한의 실상과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단체는 남가주에 앞서 지난 12월 워싱턴DC 필그림교회에서 동일한 행사를 개최했고 16일 볼티모어 가든교회에서도 행사를 연다. 문의) 949-297-3788



웹비 권 기자 손인식 목사



오픈청지기재단이 마련한 '사랑의 크루즈'에 참가한 이들

오픈청지기 사랑의 크루즈 “감동의 물결”

오픈청지기재단의 사랑 나눔 프로젝트 '사랑의 크루즈' 이벤트가 참가 가족들 간의 따뜻한 사랑을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오픈청지기재단이 주최하고 오픈뱅크와 라디오코리아가 주관하며 엘리트투어가 특별협찬한 '사랑의 크루즈' 이벤트는 지난 7일 롱비치항을 출발해 멕시코 엔시나다를 거쳐 다시 롱비치로 돌아오는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이벤트는 라디오코리아의 인기 프로그램 '아침마당'을 통해 사연을 접수한 가정들 가운데 총 32가정 104명이 선정되어 이번 크루즈에 승선해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

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나누었다. 오픈뱅크 민 김 행장을 비롯한 총 16명의 스태프들이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고 마지막 일정까지 함께 했다. 특별 게스트로 찰스 김 iCAN 회장과 영 김 전 주하원의원 부부도 이번 여행에 참여했다.

주최측은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편지를 준비해 부모님들께 '깜짝 선물'로 보여줬는데 부모님들은 넘치는 큰 감동을 받았다.

또 주최측은 혼인신고는 했지만 사정상 수년 동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젊은 부부에게 선상 결혼식을 마련해 주었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크루즈를 마치며 자신들도 나중에 자

원봉사자로 참여해서,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민 김 행장은 “이번 '사랑의 크루즈'를 4개월이 넘도록 준비하면서 아직도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좋은 나눔 문화를 만들고 힘든 상황의 가족이 기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측은 이번 이벤트의 감동을 커뮤니티에 전달하기 위해 오는 7월 27일 오후 6시 아로마센터 5층에서 '사랑의 크루즈' 보고회를 연다.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안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i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사장 : 오병익 발행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스장 의사 **LEE'S FUNERARIO**
FERRARA & LEE'S MORTUARY Un Mortuario Colonial De Empresas Ferrara

왜, 리스장 의사 일까요?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 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Since 1966

리스장 의사

더 가까이에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1966년부터 고객들을 모셔온 리스장 의사 100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넓은 파킹랏과 리뉴얼 된 쾌적한 채플 비디오 모니터를 비롯한 최신 시스템, 편리한 캐터링서비스와 아름다운 가든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은 리스장 의사뿐입니다 오렌지카운티에 계신다면, 리스장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리스장 의사

Lee's Mortuary FD1164



뉴욕 할렐루야대회가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됐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열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주최하는 2017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가 7일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개최, 9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일산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 정성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 올해 할렐루야대회는 ‘새 사람을 입으라(엡4:21-25)’를 대회 주제로 진행됐다.

첫째날 대회는 김희복 목사(준비위원장)의 사회로 목회자찬양팀 경배와 찬양, 김홍석 목사 개회선언 및 대회사, 문석호 목사(교협중부지구 대표) 대표기도, 이상호 집사(부회장) 성경봉독, 박희소 목사(증경회장) 강사 소개, 프라미스교회 성가대 찬양, 정성진 목사 말씀, 이준성 목사(준비위원회 총무) 헌금기도, 뉴욕장로성가단 헌금특송, 최현준 목사(서기) 광고, 허걸 목사(증경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성진 목사는 ‘상처를 극복하라’(창 50:15-21)는 제목의 말씀에서 자신이 자랐던 어려웠던 환경을 함께 언급하며 요셉의 사례를 통해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을 전했다.

정성진 목사는 “한 집에 아버지의 아내가 두 명이었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말미암아 저와 제 형제들 또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됐다”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죄악의 역사는 끊어지고 새로운 나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성진 목사는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는데, 이런 용서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성진 목사는 “요셉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영적인 사람이었고 이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면서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뜻을 믿고 자신의 사명을 알아 큰 믿음의 역사를 써 가는 여러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도 할렐루야대회 본 행사와 함께 할렐루야 어린이복음화대회도 같은 기간 프라미스교회 베들레헴 성전에서 진행됐다. 어린이 할렐루야대회 강사는 선한이웃어린이선교회 김창렬 목사가 참여해 3일간 메시지를 전했다.

정성진 목사는 할렐루야대회 둘째 날인 8일은 ‘충성된 일꾼’, 마지막 날인 9일 ‘은사중심적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전국서 모인 기독교실업인들 킹덤빌더 다짐

제22차 북미주 한인 CBMC 대회 열려

CBMC(기독교실업인협회) 중부 연합회(회장 배현규)가 주관하고 북미주 한인 CBMC 총연합회가 주최한 제22차 ‘북미주 한인 CBMC 대회’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웨스턴 애틀랜타공항 호텔에서 개최됐다.

‘회복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킹덤빌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북미주를 포함해 한국, 유럽, 아시아 CBMC 회원들 3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박상근 북미주 총연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일터 사역자들이 모여 내 일터가 사역지임을 확신하고 성경적 경영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박 회장은 “각자 일터 사명지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섬기는 선후배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삶을 나누고 도전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 바란다.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어 비즈니스가 킹덤빌더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한비전교회 이요셉 목사가 개회예배, 새한교회 송상철 목사가 폐회예배를 인도했으며 이번 애틀랜타 대회의 주강사

로 선임된 HTM(헤브리 터치 미니스트리) 손기철 대표와 (주)석봉토스트의 김석봉 대표의 주제별 특강은 참석한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김석봉 대표는 노점상인으로 시작해 세계 최초로 수백개의 토스트 체인망을 구축한 인물로 현재 한국교육협회 자문위원이며 이화여대 최고명강사과정 책임교수로 한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초청강사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는 “미래를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관리, 비전, 사명이다. 하루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꿈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매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맡겨진 일을 왜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깨닫고 일을 진행한다면, 자신의 꿈을 달성하고 타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하실 애틀랜타 지회장, 최석운 애틀랜타 지회원, 천경태 스와니 지회원 등이 간증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내년 북미주 한인 CBMC 대회는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수영 기자

시애틀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개척

벨뷰 및 인근 지역 전도에 힘쓸 것

시애틀 형제교회가 지난 4월, 워싱턴대학 인근에 ‘형제교회 시애틀 캠퍼스’를 개척한 데 이어 오는 8월 6일(주일) 오후 1시 30분, 벨뷰 지역 전도를 위한 벨뷰 캠퍼스 주일예배를 시작한다.

벨뷰 갈보리 채플(Calvary Chapel Eastside, 5130 164th Way SE, Bellevue, WA 98006)에서 드려지는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주일예배는 특별히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형태를 지향하며, 교육부가 함께 세워져 장년 예배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예배와 모임도 함께 진행된다.

형제교회 바셀 캠퍼스에서 진행되던 오후 1시 30분, 주일 4부 예배는 오는 7월 30일(주일)까지만 진행되며, 기존 4부 예배에 참석하던 성도들은 주일 오전 예배 혹은 벨뷰 캠퍼스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형제교회는 벨뷰 캠퍼스 예배를 통해 벨뷰 지역 한인들과 다민족 전도에 한걸음 더 다가설 계획이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담임목사는 “오랫동안 벨뷰 지역을 놓고 기도해 오던 중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다”며 “형제교회 바셀 캠퍼스 출석 성도 가운데 30% 이상이 벨뷰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벨뷰 지역 성도들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벨뷰 캠퍼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목사는 “교회의 사명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교회는 끊임없이 증식돼야 한다”며 “한인 이민교회가 이제는 분쟁과 분열이 아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개척, 성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브라이언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일-17와 비몬트 크니
주중사역-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단사를 배워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교회 토 오전 10:00-오후 1:00
한인청년부 오후 1:30 오영이 어 회 오전 11:00-오후 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인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인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에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쌍예배(엘리멘탈 스쿨)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믿음,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초콜릿, 초초 정신의 초콜릿, 바른교회관의 초콜릿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가 삶이었고 자유의 회복이 있었고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사역(한국교회) 토요일 오전 9:30
수요루터모임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강장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영성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인들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n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함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에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이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하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45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EM 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살아가는 교회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30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츄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희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오늘날의 므깃도 국립공원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37)

최후의 전쟁터 므깃도

고대의 전쟁 마당

요새의 위치상 고대로부터 므깃도는 전쟁 마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집트(북아프리카)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충돌 지역이며 두 거대한 문명권을 서로 연결하는 해안 길의 중요한 대로상에 있어서 치열한 자리다툼이 일어났던 곳이 므깃도 요새다. 므깃도는 가나안 시대부터(BC 3300-2200년) 선주민들이 있었고(수12:21, 17:11-13, 사1:27), BC 1800년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 BC 1479년 이집트의 투토모세 3세가 침입하여 파괴하였으나 솔로몬 때에 이르러 전자부대가 주둔한 병거 성으로 건설되었다.(왕상9:15) 약 150대의 전차가 주둔하며 북방 지역을 수비하였던 이곳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남북 왕국시대에 더욱 요새로 발전하였다. 유다 왕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쫓기다 이곳에서 전사하였으며 또 한 사람 유다 왕 요시야가 북이스라엘을 도우러 나왔다가 이곳에서 이집트의 바로느고에 의해 전사하였다(BC 928년). 아합 왕은 이곳에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만들었다. 이 수로는 오늘날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로로서 고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이 수로는 도시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70m를 파고 내려가서 물 수원지와 연결돼 있다. 적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물 수원지 쪽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BC 732년 앗시리아에게 무너진 므깃도는 묻혀진 도시가 되었으나, BC 720년 사르곤 2세에 의해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먼지만 쌓여있는 유적의 언덕이 되었다. 1322년 유대인들이 여행차 찾아왔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1799년 나폴레옹 전쟁, 1917-18년 영국의 알렌비(Allenby) 장군이 오스만 터어키와 전쟁을 펼친 곳이기도 하다.

므깃도의 고고학

1903년부터 1905년까지 고고학 연구가 진행되었고 1925년부터 1939년 시카고대학 동양학 연구소에서 발굴을 시작하여 BC 4000-400년까지의 유적층을 발굴했다. 이 발굴에서는 가나안 시대 산당(High Place)식 신전과 솔로몬 때 건설한 성벽과 성문 그리고 군 장교들의 관저를 발굴했다. 그 후 1960-72년 사이에 히브리대학의 이갈야던 고고학 교수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992년까지 텔아비브대학 고고학과에서 계속 유적을 발굴하여 1992년에 이스라엘 국립공원으로 만들었다. 당시 발굴을 통해 가나안 시대 신전과 그 후에 들어선 17개의 사원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각 시대마다 다른 층을 이룬 흙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20개 층에 이른다. 솔로몬 시대에 만든 성벽과 성문의 모양을 볼 수 있으며 여로보암 2세가 만들어 놓았다는 거대한 곡식창고를 볼 수 있다. 가나안 시대의 제단을 복원한 모습도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 므깃도(그리스어로 아말겟돈 Armageddon/Αρμαγεδδών)가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므깃도 산이라 기록되었지만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아말겟돈이라고 한다. 아말겟돈은 히브리어 'Har-Megiddo(Mount Megiddo)'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신교회

뜻은 같고 내용은 없다. 그냥 지명일 뿐이다. 별 것도 아닌 이름 때문에 무지하게 큰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후의 전쟁은 고통과 비참함이 이전보다 더 할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 요새 도시는 여호수아에게 점령되지 않을 정도로 가나안의 강한 요새 도시(사1:27-28)이었으며, 다윗 왕에 의해 정복된 후 솔로몬에 의해 견고한 북방 요새로 강력하게 건설되었다.(왕상9:15-19) 발굴된 유적들을 볼 때 솔로몬 왕에 의해 건설된 마병장(Solomon's Stables)은 450마리의 말과 150대의 병거를 수용한 큰 규모였다. 솔로몬은 강대한 기병대를 육성하기 위해 이곳에 요새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발굴된 솔로몬 성문은 이중 구조와 기병대가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기역자 형으로 만들었다. 이 므깃도 근처에서 세계대전이 20차례 이상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의 고통과 비참함을 말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므깃도 국립공원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요새지와 군사도시인 므깃도는 고대 도시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고대 근동의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2005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공원 입구로 들어가면 소박물관이 있다. 이곳에는 지도와 발굴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림들이 있다. 이것을 먼저 보고 므깃도의 지리적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난 다음 므깃도의 옛 모습을 만들어 놓은 모형을 보자. 대중이라도 므깃도의 요새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므깃도 유적의 언덕에 오르자. 솔로몬 시대의 성벽을 지나 전망대를 보고 여로보암 2세의 곡식 창고를 보며 솔로몬의 마병장과 마굿간을 보면 대충 유적지를 둘러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합의 거대한 수로를 들어가 보자. 한여름에도 서늘한 이 수로를 지나면 요새 밖으로 나간다. 고대인들이 장비와 설계 기술도 없이 이러한 굴을 팠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오늘날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신약적 사실은 2005년 11월에 이루어진 발견이다. 그리스어로 새겨진 세 개의 비문이 있는 모자이크 바닥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신에게 테이블을 기부한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아퀼토스'라는 이름의 여인을 찬양하는 것이 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비문이 테이블을 언급했기 때문에 당시의 성찬은 초기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테이블 주위에서 여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구역적 므깃도만이 아닌 신약 므깃도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않는 교만을 상징하는 이곳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숨쉬고 요시아 왕이 애처롭게 느껴진다. 이곳에서 과연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까? 장소와 시간은 주께 속해 있으니 전쟁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어린 이와 노약자, 여인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뿐이다. (계속)

성경 반포 전년 비해 10만 부 감소

성경전서 3,400만여 부, 전체 4억 135만여 부

2016년 전 세계에 성경 약 3,429만 1,757부가 반포됐다. 이는 전년도 반포 부수인 3,439만 6,611부보다 약 10만 부가 감소한 숫자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에 따르면, 2016년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포함해 쪽복음이라도 나온 경우를 다 합하면 총 4억 135만 6,200부의 성서가 발간됐다. 이 역시 2015년 4억 1,870만여 부 반포에 비해 1,500만여 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중동 지역의 성경전서 반포 부수가 증가했다. 2015년 241만 3,375부에 비해 약 57만 부 증가한 298만 3,938부가 발간된 것. 그러나 쪽복음과 단편을 포함한 전체 부수는 2015년 1,001만 7,251부에서 927만 5,634부로 소폭 줄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경전서 반포는 901만 4,054부로, 2015년 965만 2,053부에 비해 64만부 감소했다. 전체 부수는 5,503만 4,154부로 2015년 6,868만 9,752부에 비해 무려 1,360만여 부나 줄었다.

아프리카 지역도 662만 7,682부로 2015년 757만 7,127부에 비해 100만 부 가까이 감소했다. 전체 반포는 903만 306부로 2015년 965만 5,999부에 비해 60만 부 정도 줄어 들었다.

아프리카 지역은 전체 성서 보급 대비 성경전서 반포 비중이 높은 곳으로, 공급된 전체 성서 자료 중 약 73%를 차지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 전체 성서 보급수는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미주 지역은 2015년(1,475만 4,056부)에 비해 약 91만 부 증가한 1,566만 6,083부의 성경전서를 보급했으며, 전체 성서 보급 수가 3억 2,081만 6,106부로 전 세계

에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역시 2015년 3억 3,035만 4,226부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숫자다.

나라별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무슬림인 방글라데시 성서공회의 경우 도서 박탈회,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약성서 반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15년보다 8배 늘어난 10만 5,081부의 신약성서를 2016년 반포했다.

방글라데시성서공회 담당자는 “이 성서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교회 출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 가정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3년부터 ‘쿠바에 백만부 성경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쿠바성서공회도 단편성서 보급율이 두 배로 늘어난 35만여 부를 보급했다. 미국도 조금씩 성서 반포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UBS 측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라며 “저희를 비롯한 각 성서공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인쇄 매체 성경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담당자는 “성서공회들은 성경을 인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가 디지털 성경 사역을 발전시키는 데에 힘쓸 것”이라며 “전 세계의 지구촌이 웃음이 모두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문화가 자녀양육에 부정적 영향”

문화와신앙재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근에 이뤄진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미국의 미래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문화가 어린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타락한 힘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국문화와신앙재단(the American Culture and Faith Institute, 이하 ACFI)이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도했다.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미국 문화에 대한 견해와 관점, 미래에 대한 전망, 구체적인 활동과 경험, 그것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미국 문화가 18세 이하 어린이들의 삶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성서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93%의 응답자가 문화가 어린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미국인의 미래 전망도 암울하다. 응답자의 60%는 앞으로 10년 후에 성경의 가치를 알도록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다. 11%만이 앞으로 10년 후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나머지 29%는 문화의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앙의 역할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이들의 72%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55%)에 비해 더 큰 도전을 예견했다. 또 성서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85%는 향후 10년간 성서를 중심으로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예견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5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자녀가 노출된 환경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그 결과 TV 엔터테인먼트, 소셜 미디어 및 비디오 게임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으나 가족 모임, 교회 예배, 예술 전시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59%는 ‘성서’를 자녀양육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았다. 11%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ACFI의 이사인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문화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맥락”이라며 “그러나 어른들은 문화를 형성하고 통제할 수 있다. 문화가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믿는다면 왜 문화를 바꾸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동성애 상징 차단했다가 살해 위협

펜코스키 목사 “죄 환영할 수 없어”

무지개 깃발로 표현되는 동성애자 이모티콘 사용자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차단한 목사가 살해와 강간 위협을 받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워리어 포 크라이스트’(Warriors for Christ)라는 팔로워 20만명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리치 펜코스키(Rich Penkoski) 목사는 LGBT 활동가들로부터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페이지는 기독교 사역을 위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즉시 차단된다.

펜코스키 목사는 “우리 페이지에서 무지개 깃발 사용자를 왜 차단하는지 묻는 사람은 없다. 무지개 이모티콘은 동성애의 상징이고 우리 페이지는 기독교 사역 사이트”라면서 “우리는 죄를 환영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가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한 무신론자가 이러한 상황을 블로그에

공유하면서 널리 퍼지게 됐고, 게이들이 사용하는 블로그나 신문에도 알려지게 됐다. 이후 펜코스키 목사는 동성애자들로부터 “당신은 죽어야 한다”, “가서 죽어라”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게 됐다.

그는 이러한 위협 때문에 집 주소를 변경했다. 펜코스키 목사는 “동성애자들이 집주소로 게이 포르노를 보내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강간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이러한 행동은 기독교인이나 아닌 상관없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 유형이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침묵시키려는 의도가 가득하다. 이것은 증오범죄”라고 말했다.

동성애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은 펜코스키 목사뿐만이 아니다. The Activist Mommy라는 유명 블로그를 운영하는 엘리자베스 존스턴(Elizabeth Johnston) 역시 위협을 받고 있다. 존스턴은 “주님을 위해 아주 작은 박해를 경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가 되어 3000 세계전용 위하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LA배백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회,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전집이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더글러스)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아)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 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 매일 4부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규담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6: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말미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 기도일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예프터스쿨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FAE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중등부 오전 9:15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6: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리스펙티브 예배 오후 5:00

주혁모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 217-5558

주일 심리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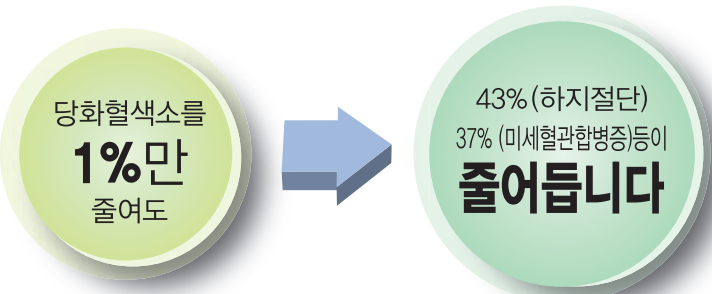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대학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텔레마케터 모집
문의 : 949-864-9162

Majority of Americans Believe Churches Are Making a Positive Impact in the U.S., Study Reveals

Over the years, a majority of Americans have said they believe the impact of churches on the nation is a positive one -- and according to a study released on Monday, that view hasn't shifted much.

The Pew Research Center study examined Americans' views on the impact of several major institutions such as churche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colleges and universities; banks; labor unions; and news media. Though the difference in perspective saw a significant gap across party lines, overall, more than half (59 percent) of Americans said they believe churche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have a positive effect.

Republicans were much more likely to say that churche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have a positive impact, as 73 percent of Republicans and Republican leaners said so, compared with 50 percent of Democrats and Democratic leaners.

Churche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beat out the other institu-

tions when it came to Americans' trust. Colleges and universities followed close behind, with 55 percent of study participants responding that they believe colleges have a positive effect. Labor unions (47 percent) and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39 percent) followed thereafter, while news media (28 percent) came in last.

These results represent a rather stable view that has been maintained over the years, Pew said.

"Public views of the impact of churche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on the country have changed little in recent years," the study stated.

Among religious groups, those who did not affiliate themselves with any religion were least likely to think positively of churche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34 percent).

Meanwhile, white evangelical Protestants were most likely to believe churche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country (80 percent).



Milal Mission hosted its 19th annual Camp Agape in Bakersfield, CA. (Photo courtesy of Milal Mission)

'Grace That Transcends Physical Capabilities'

Milal Mission hosts annual camp for those with disabilities

Milal Mission, a non-profit which serve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hosted its annual Camp Agape from June 29 to July 1 with its Southern California, Northern California, and Vancouver branches all together. Camp Agape, which is hosted jointly by the branches in the West Coast, has been hosted for the 19th time, and some 400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volunteers participated this year.

Though the camp had usually taken plac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this

year's camp took place at a hotel in Bakersfield. This year's event was based on the theme, "Holy SWAG (Spirit with Amazing Gift)," and on the theme verse Galatians 5:22-23,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A joint choir team consisting of members from multiple churches, called PPOG, led worship, and a young adult volunteer team called TRAC helped coordinate the programs.

As with every year, this year's camp also featured a time of feet washing and communion, through which God's love was shared.

"As the volunteers washed the feet of those with disabilities, we all were able to experience and carry out the sacrificial love that Jesus has toward all of us," said one organizer of the event.

Milal Mission also holds other programs throughout the year, including Class Agape, a free Saturday schoo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at focuses on social skills and academics.

At a New York Church, Korean and English Ministries Sing Together for Missions

Crystal Church of New York held its eighth annual Mission Concert on July 2, during which various performances took place with the purpose of raising funds for the short-term mission trips taking place this summer.

This year, members from Crystal Church will be visiting and serving people in Haiti, Cuba, and Dayton, OH from July 8 to August 5.

One of the most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rystal Church is the unity among the Korean ministry (KM) and English ministry (EM) under the leadership of a senior pastor who is of the '1.5 generation,' and that partnership was evident

this time around as they participated in the mission concert together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mission teams.

"Our annual mission concert is a ministry that began eight years ago with conviction, but it's also a ministry through which we experienced the hand of God every year," said Rev. Steve Hwang, the lead pastor of Crystal Church. "We always feel that we are inadequate, but we learn how to depend on God, who is our strength when we are weak, and we seek his guidance and providence."

"God is most interested in how we please Him through our worship,

and what we can do in response to God's sending of his one and only Son is to give him the glory through worship," Hwang continued. "The proceeds of the mission concerts completely go to furthering God's Great Commission. I pray that all of you would be able to take that amazing privilege that God has given you and worship Him at the mission field."

Short-term missionaries from Crystal Church will be in Haiti from July 8 to 15; in Cuba from July 15 to 22; and in Dayton, OH from July 22 to August 5. In Dayton, the mission team will be serving refugee families in the region.



Crystal Church of New York held its eighth annual Mission Concert on July 2, 2017 to support its short-term missionaries. (Photo courtesy of Crystal Church of New York)

Sowing Seeds of the Gospel in Zambia Through Teaching, Building, and Sharing

BY BRIAN KIM

New Vision Church, located in Lynnwood, WA, shared the gospel in Zambia from June 20 to July 6 as mission team members helped build a church there, hosted a Vacation Bible School for children, and helped build clean water wells.

Members from New Vision Church stayed in Lusaka, the capital of and largest city in Zambia, where they shared the gospel with both children and adults alike.

"It was a busy schedule since we

were carrying out many ministries in a short period of time," said Rev. Woo Suk Chun, the lead pastor of New Vision Church, "but by God's grace, all of the ministries were carried out smoothly. I'm thankful that our church members were able to share God's love through their service."

Meanwhile, members of New Vision Church held special dawn prayers from June 20 to 30, praying for those in Zambia and the ministry that would take place during the mission trip.



New Vision Church, located in Lynnwood, WA, shared the gospel in Zambia from June 20 to July 6. (Photo courtesy of New Vision Church)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7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든 학위 과정을 100% 온라인 강의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소지 BA, 학생들은 연방정부 교육국으로부터 학자금 보조(Title M) 가능. (보조는 자격 요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졸업후 상환하지 않음)

1 ESL 과정

- 친절하고 우수한 강사들이 학생들의 언어 레벨에 따라 지도하는 맞춤형 언어교육
-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최적화된 언어교육 과정

2 학사(B.A.) & 교역학석사(M.Div.) 과정

- 교수의 95% 이상이 미국의 우수한 신학교에서 Ph.D. 학위 취득
- 다문화, 다인종 공간에 맞는 신학교육
- 경건과 학문에 기초한 선교지향적 신학교육

3 크리스천상담심리석사 (M.A.C.C.P.) 과정

- 이론과 임상을 겸비한전원 Ph.D. 학위 소지 교수진
- 성경과 복음적인신학과심리학의 조화로운 통전적 상담심리
- 현 시대에 맞는 크리스천 상담심리이론의 숙지와 실제적인활동

4 특전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교육국 승인 학교
- 인터넷만 있으면 원격강의로 전세계 어디서나 학위과정 이수
- 교단 산하 북미주, 중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470여 개 교회와 선교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a.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010-9086-2458 / diakonia@gmail.com

* 전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 교단 목사로서는 물론 예장통합(PC)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인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명이 가능합니다.

ESL 문의 및 상담

- 박동식 교수 (dspark@ptsa.edu)
- www.facebook.com/SLCS.EPT

www.ptsa.edu | 1-20 발행

정회원 ats 정회원 후보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missionchurch.org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m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m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Four Signs a Couple Will Recover From Near Divorce

BY STEVE CHANG

The wife walked into my office alone. She informed me that her husband would be arriving separately. When he finally came, they talked to me, but not to one another. After some small talk, I finally asked, "How are you doing?" They only shared as much as their shame would allow, but opened up enough to convey that their marriage was deeply broken. They had arrived in my office because they felt helpless and hopeless. They had come to a point where divorce seemed inevitable.

For many years, these types of encounters caused me to panic. But for some reason, with this couple, I felt a sense of confidence and peace. I told them that I believed there is hope for their relationship, even though I could only articulate a part of the reason at that moment. But I had seen other couples who had come into my office, desperate and injured. Months and years after those initial encounters, those marriages somehow recover.

I sensed that this particular couple would follow that same path. After that meeting, I thought about the common signs of couples who recover from near disaster and how they are different from those who continue to the brink and disappear into brokenness.

1. They began with blessing.

All marriages begin with a honeymoon period. After this often comes a time of conflict and doubt. Husbands and wives who begin their marriages with the full support of friends, church and family seem to handle this difficult period better. When couples have doubts about whether they married the right person, they

need to rely on the witnesses, blessings and counsel of those who know and love them. The couple can be reminded that they did not make a mistake and lean on the blessing of those who love them for assurance.

2. They are engaged in a spiritual community.

A spiritual community is more than well-meaning family and friends, who, if they are not gospel-minded, can encourage couples into demands, discord and divorce. A spiritual community is more than a group of friends who happen to be Christians but do not meet regularly. Rather, a spiritual community occurs when a couple regularly meets with fellow believers who understand the power of Christ in the sinner's life. A spiritual community will urge a couple toward repentance and forgiveness over immediate personal happiness (Hebrews 10:24-25).

3. They submit to spiritual authority.

Another sign that a couple will survive is that they come to spiritual authority for guidance. A couple can go to a therapist for advice, which they can choose to follow or ignore. For a Christian couple, their pastor plays a different role from that of a therapist, or that of an attorney. When a Christian couple go to their pastor, they are communicating a willingness to submit to spiritual authority, and ultimately God's authority. The very act of seeking spiritual counsel shows a willingness to submit and change.

4. They have been immersed in the gospel.

The most important sign is that the couple is immersed in the Word of God and the gospel. The world is broken and marriages are broken.

During difficult moments, many couples have doubt about the future of their marriages. Their emotions, scars, family and friends will often whisper in their ears that they have no hope, they deserve better and they need to make a change. But the Christian who sits under gospel teaching is urged to have humility and not blame others. The gospel teaches them that the answer lies not in their own goodness or the change in their spouse, but in the power and forgiveness of Jesus Christ.

Almost every couple I know struggles. Many become helpless and hopeless. If a couple has started without blessing, are isolated from spiritual community, are resistant of spiritual authority and are immersed in worldly thinking, I conclude that they will ultimately do what is right in their own eyes.

But no matter how deep the scars or traumatizing the conflict, when a couple has started with blessing, is connected to spiritual community, is open to spiritual authority and is immersed in gospel teaching, I have hope.

When I look out on Sunday mornings, I see the couple who walked into my office separately. I see them along with many other couples who have recovered from near disaster. Their marriages are far from perfect. Yet, I see Christ working in them. I see hope.

Pastor Steve Chang is the lead pastor of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and a board member of Crossroads Campus Ministries.

This article has been republished with permission from the SOLA Network website. SOLA exists to influence the emerging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Five Terrible Reasons to Enter Vocational Ministry

BY THOM RAINER

I've seen too many people in vocational ministry fail to launch.

Perhaps "launch" is not the best term, because they may stay in ministry for many years. But they never seem to do well. They never seem to have peace. They seem like they are always trying to prove something.

I recently went through my old seminary pictorial directory. I was able to locate 47 people I knew in seminary who I know where they are today. Of that 47, only eight remained in ministry. If you are doing the math, that is an 83 percent dropout rate. Vocational ministry is a calling. It is not just another vocation. If you enter ministry for the wrong reasons, it is likely you will not do well. Indeed, it is likely you will not make it.

What are some of the terrible reasons to enter vocational ministry? Here are five of the most common failures:

Escape from a secular job. I know a man who has a huge desire to work full-time in ministry for a church. But the only reason he ever articulates is his hatred of his middle management secular job. He sees ministry

vocation only as an escape from the problems of corporate work. I hope his heart changes before he makes the leap.

Fulfilling family expectations. About one-third of my peers who dropped out of ministry came from families in vocational ministry. Don't hear me wrongly. It is admirable to see multiple generations in ministry for the right reasons. But too many in ministry feel compelled to enter that world because of family pressure. One peer of mine told me, "Dad called me into ministry, not God."

When your spouse is not supportive. Vocational ministry is demanding and can be exhausting. If ministers do not have the support of their spouses, their lives will be miserable from the point of entering vocational ministry. For those of you who have supportive spouses in ministry like me, count your blessings.

Not theologically prepared. I recently heard a man preach a sermon that had, sadly, several biblical and theological errors. Those errors did not go unnoticed by many members in the congregation. The role of teaching and preaching in ministry is not to be held lightly. Do not enter

ministry theologically unprepared.

Skewed views of the demands of ministry. I was in a conversation with a 30-something pastor who came into ministry from the secular world. His words went something like this:

"I had this idea that I would have all this free time and short work weeks. Ministry seemed like a piece of cake compared to the world I was coming from. I couldn't have been more wrong. It is unbelievably demanding. I am on call 24-hours a day whether I admit it or not."

For those who enter vocational ministry for the right reasons, the work can be incredibly rewarding and fulfilling. For those who don't, the frustration will seem unbearable, and the failure rate is high.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at ThomRainer.com on June 26,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 Thom.S.Rainer.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BANNER



\$65
Stand X-Banner

\$140
Retractable Banner

\$160
(디자인 포함)



What Actions Can the Immigrant Community Take to Respond to Enforcement? Advocates Weigh In

BY JESSICA LIM

For those in the immigrant community, the numerous reports of raids by enforcement officials may give rise to a greater sense of fear. But immigrant rights advocates say there are still actions that individuals can take in response to, and in preparation for, such encounters.

During a national press call on July 11, Grisel Ruiz, staff attorney at the 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 said that “there are certain constitutional rights that we still have that immigrants can rely on, and that they have regardless of immigrant status.” For instance, immigrants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to not allow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agents into their homes and properties, she said.

Ruiz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sking for a judicial warrant during these situations, and added that the enforcement officials “rarely” possess warrants. She also advised those who encounter immigration officials to “never sign anything without speaking to an immigration attorney.”

Likewise, advocates on the press call added that “employers also have

rights” that they should exercise if immigration officials come to the workplace.

“So long as the workplace is private property, the ICE agents also must have a judicial warrant,” said Ruiz.

Employers can be intimidated when faced with these encounters, often leading them to follow the authorities without questioning, advocates said. However, Michael Young, a legislative advocate for the California Labor Federation, said they should be “asking for a subpoena before providing any private information,” since this information may put not only the worker but also their family members at risk.

Besides employers, even everyday people that witness an ICE activity can take action, Ruiz added. The first step that bystanders can take, according to Ruiz, is to contact a local nonprofit to make sure it is not false information and that an ICE activity is actually happening. Bystanders can also document the incident by taking a video, and collect as much information as they can about the situation.

Advocates added that those in the immigrant community can take precautionary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their assets and belongings.

Mohan Kanungo, director of programs & engagement at Mission Asset Fund, encouraged individuals to become more educated on “how to protect your money, how to protect your belongings, and creating an emergency plan.”

“Immigration related emergencie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ocketbooks,” said Kanungo.

For instance, Kanungo said, the national average cost of a bail bond is about \$10,000. In addition, having legal representation during these bond hearings can average anywhere from \$3-5,000. Transfer of guardianship is about \$2-4,000, and on top of these already high expenses, individuals involved in this process have other monthly bill payments to consider as well.

Kanungo encouraged those in the immigrant community who seek to plan ahead in regards to their assets by taking advantage of seminars and other resources made available by nonprofits like Mission Asset Fund that can help them learn more on how to do so.

Approximately 2.6 million undocumented immigrants reside in California alone, according to statistics provided by 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in 2014.

Mosul Freed from ISIS, Yet Humanitarian Concerns Remain

While the Iraqi government celebrated as its Prime Minister officially declared victory over ISIS in Mosul on Monday, many humanitarian groups expressed concern that much still remains to be done in address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placement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From the Old City we announce the liberation of Mosul and remember the heroic sacrifices of our armed forces and their families,” Iraqi Prime Minister Haider al-Abadi tweeted on Monday.

Early on Tuesday, al-Abadi added in another tweet: “As we announce the liberation of Mosul we also acknowledge the challenges of reconstruction and stability and call on Iraqis to unite.”

The Islamic State, also known as ISIS, declared Mosul as its territory in June of 2014. The battle to reclaim Mosul has caused more than 900,000 to flee from their homes.

Mosul’s captivity under ISIS particularly affected the Christian community. Over 100,000 Christians have been displaced, and the extremist group had destroyed or taken captive all of Mosul’s churches and religious institutions.

William Stark, the regional manager for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said that while ISIS defeat in Mosul is a positive step, much remains to be done for Christians to feel safe in the city.

“Although the liberation of Mosul is something to be celebrated, it doesn’t change the fact that there is still a long road and difficult road ahead of Iraq’s Christians,” Stark said.

“For over three years, ISIS was allowed to occupy Mosul and its surrounding towns, some of which were



The city of Mosul, Iraq, pictured in March of 2017.

considered Christian safe havens. During this occupation, ISIS not only destroyed much of what these Christians considered the symbols of their community, such as churches and schools, but also the homes these Christians were forced to leave in 2014,” Stark went on. “There is much healing and rebuilding needed if Christians are to return to their communities in northern Iraq.”

BBC reports that over 5,000 buildings have been damaged and 490 have been destroyed in the Old City.

Activists have also been calling on governments to remember the humanitarian needs that remain.

“Many of the people who have fled have lost everything,” Lise Grande, UN humanitarian coordinator in Iraq, told BBC. “They need shelter, food, health care, water, sanitation and emergency kits. The levels of trauma we are seeing are some of the highest anywhere. What people have experienced is nearly unimaginable.”

In a report published on Tuesday, Amnesty International said all parties involved in the battle to reclaim Mosul have carried ou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ISIS, Iraqi forces, and the US-led coalition.

“Even in attacks that seem to have struck their intended military target, the use of unsuitable weapons or failure to take other necessary precautions resulted in needless loss of civilian lives and in some cases appears to have constituted disproportionate attack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the report.

“The root causes of violence and conflict in Iraq need to be addressed in te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uffered by all communities in the country over several decades,” Zeid Ra’ad Al Hussein, UN human rights chief, was quoted as saying by Al Jazeera. “Only then can secure foundations be laid for the lasting peace that the Iraqi people deserve.”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영혼의 진주를 나사로 사세요

| 소강석 지음 |

320면 / 13,000원

원색적인 복음 선포와 전도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사라져가는 시대
여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부흥성회와 연합집회, 목회 생태계 복원 사역을 위해
온몸으로 포효한 한 목회자의 불꽃같은 메시지가 있다!
갈수록 영혼구원을 향한 열망과 전도의 동력이 소멸되어가는 시대 속에
그의 메시지는 부흥의 불꽃이 되고 파도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구원 초청과 전도 독려 설교의 완결편!

예수 마니아가 되라

| 소강석 지음 |

320면 / 13,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cumr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목사 안수 및 강도사 인허

본 교단과 노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과 사명은 있으나 아직 목사안수를 받지 못하였거나 강도사 인허를 받지 못하신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지만 선교사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본 교단에서 선교사 라이선스를 수여합니다.

- 자격**
 - 1)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단, 이단은 제외되며, 나중에라도 이단임이 밝혀질시 모든것은 자력으로 취소됨)
 - 2)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아 이시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자 헌신된자. 서류 : 소정의 응시원서, 추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기자신의 신앙고백서
- 시험**
 - 1) 강도사 : 소정의 2주간 교육후 시험을 분후 강도사 인허
 - 2) 목사 : 소정의 교육후 시취후 목사안수
기간 :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서류전형)
주최 : *All The Nation International Evangelical General Assembly
*Koam Presbyterian Church
*The Hap Dong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신, 편입생 모집

본 신학대학원은 개혁주의 학교로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학교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캘리포니아 주교육국에 종교학교로 정식 인준 받은 학교입니다.

■ 학위과정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모집합니다.
특히 타 학교에 없는 사역에서 필요한 학과들이 많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사회복지학과와 크리스찬 레크레이션, 스포츠 코칭학과가 준비되어있으며, 비영리 종교단체 비즈니스 메지저먼트 학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나 사전 연락후 방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고 : 교단이나 학교는 다른 어느단체나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중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총장 : Dr. DAVID LEE, 학장 : Rev. YO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EL : (213)422-8916, (213)386-0300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차기 담임목사 청빙

나성북부교회(kcnla.org)에서 후임으로 사역하실 담임목사님을 찾습니다. 본 교회는 해외한인장로회(KPCA)에 속해 있으며, 올해 창립 42년 입니다. 청빙된 분의 사역시작 시기는 2017년도 말에서 2018년도 초입니다.

■ 자격조건

- 정규신학교 졸업
- 3년 이상 이민목회 경험
- 해외한인장로회(KPCA)교단 가입 가능한 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취업이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이메일주소 필요)
- 가족 소개서 (사진 포함)
- 졸업증명 및 학위증명서
- 목사안수증명서
- 목회 철학 및 계획서
- 최근 설교 2회 (웹의 동영상 주소)
- 추천서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분에게 필요함)

■ 제출마감일/보내실 곳

2017년 8월 15일(화), kcnlanextgen@gmail.com

서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모든 서류는 PDF 또는 Word파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검토할 것이며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분에 한하여 이멜로 통보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성북부교회

수치스런 이름, 영광스런 이름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한 약 5만 명의 백성이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에사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B.C.458)이 일어났습니다. 에사라는 율법학자로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전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느헤미야의 3차 귀환(B.C.444)이 있기 전에 에사라는 인상적인 개혁을 합니다만, 112명의 족보는 백성이 다시 이전생활로 돌아가 이방인과 결혼하고 개혁에서 이탈한 기록입니다.

에사라에서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성벽의 건설을 통한 외형의 개혁과 말씀을 통한 예배와 결혼의 내부개혁입니다. 에사라 1-6장까지가 외형

개혁이라면 7-10장까지는 내부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사라는 이방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여자와 자식을 쫓아내라고 명합니다. 이러한 내부개혁은 나중에 느헤미야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난 혼혈족인 암몬과 모압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꾸짖고 이방인을 가족공동체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느13:23-30). 참으로 무서운 개혁입니다.

에사라서 10장에 나타난 112명의 이방인과 통혼한 불명예스러운 족보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부끄러운 실패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이들의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에사라의 족보는 철저히 회개한 사람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아마 천국 명단, 생명책에 기록된 가정일 겁니다. 회개를 이룬 이 명단은 더 이상 수치스런 족보가 아니라, 영광의 개혁을 이룬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철저한 개혁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꿉니다.

설교와 낚시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과 아이디어의 전달에 최선을 다합니다. 글 쓰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의 99% 완성된 원고라고 자부하고 싶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강단에 오르면 여지없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상황을 미리 고려하고 원고를 써도, 예배의 현장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 같은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역팀은 아마, 제가 강단 위에 가지고 올라가는 원고가 통역팀에게 제가 거의 완벽하게 달고해서 넘긴 원고와 다른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황이 달라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달고를 기다리고 있는 글이 컴퓨터 화면에서 깜빡

하는데 그것이 마치 낚시에 잡혀 갑판 위에 올라온 물고기가 아가미로 숨 쉬는 모습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혼자 부흥회 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그러나 혼자 서재에서 부흥회 하는 상황을 설교 원고로 옮기는 것은 마치 아가미가 꺾어버리는 물고기를 살리는 일처럼 불가능합니다. 막상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내려 오면,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처럼 고생 끝에 잡은 고기를 상어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너털너털해진 고기만 남은 허탈한 심정일 때가 많습니니다.

영령의 힘이 필력이라면 설교 원고는 필력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99% 완성도를 가진 설교 원고지만 필력으로 넘볼 수 없는 1% 영역이 있습니다. 즉 예배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1%가 그림의 완성을 좌지우지하는 화룡점정(畫龍點睛)처럼 너털너털해진 99%의 설교 원고를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100% 부활시키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해냅니다. 설교는 필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경영 칼럼 5〉 성경적 경영의 이유

I. 윤리 형성에 있어서 성경의 역할

‘경영’의 성경적 모델은 성경의 원리가 일련의 실천 윤리들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된다. 우리는 기업 윤리의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두 성경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기업윤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구절 중 하나이고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지만, 가장 적용이 되지 않는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2절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만약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는 비윤리적 행위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9-42절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본 구절은 인간 본성과는 반대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련의 기업 윤리를 확립하고자



제임스 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하는 경영자와 사업가가 직접 적용할 기본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즉, 우리는 사람들과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II. 성경적 경영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

경영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이유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타인보다 내가 낫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성경적 원리가 돈을 벌 목적으로 경영에 적용해선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려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 14:15).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어떤 이기적 이유가 아닌) 성경적 원리들을 경영에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만약 우리가 매일 함께하는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이 복음을 접하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면, 우리의 선한 본보기가 그들의 신앙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4-16)

우리는 우리 행동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성경적 원리를 경영에 적용하는 이유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보다 더 좋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성경적 경영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이다. (계속)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삶의 지혜

전도서 1:1-11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생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 왔습니다. 열왕기상 3:2에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는 일천 마리의 제물을 하루에 번제(燔祭)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윗의 열 여섯 아들 중에서 보잘 것 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황감(惶感)하여 일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불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3:9)” 했습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壽)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富)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난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왕상3:11-14)”고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왕상3:28).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왕상4:29-30)” 했으며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려 왔더라(왕상4:34)”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국력이 신장되고 위세가 확장되었으며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분별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우매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웃나라에서 여자들을 솔로몬의 첩으로 많이 보내왔고 좋지 않은 관계들을 맺게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세상조건에 편승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게 되고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타국에서 온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성전 안에 갖다 놓고 절하게 하는 죄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에 편중하고 세상조건에 편승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인생의 무상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이 회개하도록 하였고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토설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쓴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전반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고백이며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2절은 세상 무엇인가에 빠져들 땐 최고로 여겼던 것들이 부질없고 잘못 살았던 것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깨달아 회개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이 세상 조건을 위하여 애썼다는 것이며, 본문 5절에 “해는 쫓다가 지며 그 쫓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하는 말은 자신을 기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기준삼아 사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삼아 사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준삼아 사는 인생은 속임을 당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깨닫는 지혜가 빠를수록 회개하여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사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후로 살게 될 사람들도 우리가 옛 사람들을 쉽게 잊듯이, 우리가 살다가 흠으로 돌아가면 후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18부터 보면 솔로몬은 세상조건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한탄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지혜로 수고한 모든 결과물을 관리하게 될 것이기에 그것 또한 헛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15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산다는 것은 곧 허욕이며, 허욕은 스스로의 멸망을 재촉하는 결과뿐입니다.

전도서 2:21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했지만,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가 가지고 살게 되고 그 사람의 수고한 성과는 또한 다른 사람이 챙겨 살게 되니 이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모든 수고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게도 유익한 것이 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전2:23)” 했습니다.

마태복음 6:34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전도서 2:24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는 고백은 솔로몬이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섰기에 얻어진 경험입니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세를 의미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영원의 소망을 가꾼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도서 3:11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흠모하여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파생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은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확실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19-20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12-14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실패

는 자기중심으로 처신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관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심령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중심의 신앙 인생은 육신의 처지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 척하며, 말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듯 말하지만 작은 어려움에도 표정이 바뀌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좋지 않게 변하는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사는 인생이라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세상에 보내셨고 오늘까지 지키시고 가꾸시고 보살피고 오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윗 또한 시편 39:4-7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뼉이 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듣는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이다(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라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IS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살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석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미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65 (Stand X-Banner) \$140 (Retractable Banner)

선교 찬양 단원 모집

• 단장 : 1명 • 기타 : 1명
 • 단원 : 12명 • 키보드 : 1명

* 40~50대 남녀
 * 찬양선교에 관심있거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문의 : T. (213) 800-52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무료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 발가락 {퇴행성 관절통증} ✓ 마디관절 {손목, 발목 질환}

***지속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벨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벨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신간 도서

왜 기도하는가?

윌리엄 필립 | 김애정 역 | 좋은씨앗 | 152쪽

출판사의 '손 안의 신학' 첫 번째 시리즈.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만으로도 기도에 관해 가장 많은 것 배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기도를 신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단지 간절히 또는 열심히 기도하라는 식의 '권면'을 받기보다 성경이 기도에 관해 '설명'하는 바를 찾고, 그리하여 기도에 관해 자유함을 얻게 한다.



추천 도서

어두운 시기 보내는 이들에게 소중한 교훈과 도움 주는 성경책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여호와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고난에 대한 해석에 있어, 하나님은 악을 통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미학적 신정론과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한다는 교육적 신정론이 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책임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다는 주장과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이 항변할 수 없다는 논리를 지닌,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신정론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오래된 방법은 더 이상 고난을 풀어내는 충분한 설명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 같다.

신정론이라는 말은 약 삼백년 전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고안해 낸 용어로,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한 변호이다.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원치 않는 고난의 시절을 지나거나 악인들이 득세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변호가 필요하다. 아우슈비츠와 킬링필드, 그리고 1980년 광주와 세월호와 같은 사건들도 하나님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나님께는 이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에 대한 변호가 필요하고, 그것을 담당하고 나선 것이 신정론이다.

어디 하나님의 변호가 필요한 영역이 이뿐이겠는가?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이나 아직도 우리로 하여금 소름끼치게 하는 수많은 비극들과 전쟁들은 도대체 신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항변하게 만든다. 또한 악인의 행동과 의인의 고난과 역울함 앞에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항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 죄와 악의 조성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허용하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이해로는 다 알 수 없는 신비이고, 믿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 책은 욥기를 통해 욥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해 하나님을 듣는 것을 넘어 보는 자로 성숙시켜 주신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 고난인데 하나님은 피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 큰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

어찌 이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욥기는 우리 인생에서 심각한 질문이고 큰 주제인 고난과 싸운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신비를 가지고 친구들과 논쟁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답을 듣는다. 욥은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듯 그렇게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 욥기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이레시원 | 128쪽

고 의심하고 항변하듯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 바쳐서 지친 상태로 눈물을 쏟고 답을 듣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은 매우 지루하고 길고 지친다. 욥기 3-41장이 더디게 진행되듯, 고난은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만든다.

본 책은 지혜서와 해석학 전공자인 저자가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가는 욥을 우리의 실존과 연결시킨다. 예수님의 고난과 욥의 고난도 비교하며,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미덕을 보이며 송고한 내면으로 승화되었듯, 욥도 고난을 지나며 주님처럼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으로 변화된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보듯, 욥의 세 친구들은 마치 고발하는 자 같다. 욥을 더 죄인으로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소망의 뿌리마저 뽑으려 한다. 그들은 신명기적 역사관에 근거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준다고 한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또한 성경적이며 현실적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를 절대적 기준과 명제로 여기며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큰 고난에 처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신명기적 관점만 고수하다 보니, 의인임에도 고난 받는 것만으로 욥은 죄인이 되고 고난은 당연한 형벌이 된다.

이것이 일반적 현상인데,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인간의 고통과 희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화화하는 방법이다. 세 친구들

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무시간적이고 무상황적으로 적용한다. 물론 그들의 주장을 다 없앨 수는 없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일부는 죄에 대한 벌로서 인과응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모든 고난이 형벌은 아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성숙과 연단을 위한 고난도 있다.

욥이 항변하고 반발하는 것은 부재한 것 같은 하나님도 아니고 불의로만 보이는 하나님의 정의도 아니며, 바로 '죄-고난'이라는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운, 사람이 증발된 독단적 교리이다.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항변이 아닐까? 또한 그 하나님 앞에 현존하는 인간의 고통과 믿음이 결부하여 소리치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은 얇은 책이지만 욥기 읽기를 잘 도와준다. 존재와 인생과 고난과 신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으로 풀어야 하는지 핵심을 짚어준다. 욥기의 문학과 시적 언어가 신앙으로 승화되는 특징도 소개한다. 영혼의 어둠을 지날 때 무엇이 그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도와주며 해답이 되는지 보여준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는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지혜와 변화의 과정으로 독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또한 필자에게 한 가지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욥의 고난을 제자도와 연결시키는 부분이였다. 얼핏 보면 고난과 제자도는 어울리지 않는 듯하고, 더구나 현대처럼 복음이 피상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변영과 성취적으로 왜곡된 시대에서는 더 외면하게 만드는 주제이다. 그러나 저자는 고난을 제자도에 있어서 필수이고, 사람마다 강도와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신자가 거쳐야 하는 십자가요 자기부인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인생을 새롭게 보도록 도와주는 욥기, 많이 읽히지도 않고 외면하며 설교도 거의 하지 않고 지루한 성경으로 대표되는 욥기, 그러나 인생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소중한 교훈과 도움을 준다. 이 책은 욥기 읽기를 도와 독자들에게 인생의 기쁨을 주리라 생각된다.

방영민 목사(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뿌리 깊은 신앙

유재필 | 두란노 | 256쪽

뿌리 신앙, 바라봄의 신앙, 알곡 신앙 등 3부로 나눠 신앙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5개 덕목을 소개한다. 저자는 신앙생활을 하다 가끔 길을 잃거나 제대로 걷고 있는지 헛갈릴 때일수록 '기초'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서 있는지 살피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신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도의 집을 세우라

박호중 | 규장 | 264쪽

2009년 3월 이후 현재까지 365일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도의 집'을 운영해 온 저자가 기도의 집에 비전을 가진 이들을 위해 나눈 몇 가지 실제적 지침을 담았다. 교회와 기도의 집은 하나라고 믿고, 교회의 본질적 회복 중에 하나가 기도의 집으로서의 회복이라 믿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기도의 집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해 피해야 할 몇 가지 '신드롬'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다.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달 3,000불의 매실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아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원: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Since 1999

www.e-nca.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가을학기 학생모집 K-9th
썸머 스쿨 6/5(월)~7/28(금)



무료 앱 다운로드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50점 기록(일반 학교 평균 1,000점)
- 지난18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명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북한 동족과 통일을 위한



통일포럼 Talk Show

나성순복음교회

나침반교회

통곡기도회

한국인 핏줄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공동기도

“주여 2017년이 통일의 해가 되게 하소서”

일시: 2017년 7월 21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LA Full Gospel Church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일시: 2017년 7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Nachimban Church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EL: 562.691.0691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먼 북한, 우리는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탈북 파워 엘리트들이 폭로하는 북한의 실상을
통일포럼 토크쇼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와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굶주림과 억압속에 처참히 죽어가는
북한 동족들을 위해 함께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통일포럼 TALK SHOW 출연자



임창호 목사
고신대 교수



강철호 목사
북기총 회장/새터교회 담임



강철환 대표
북한전략연구소장



김아라 자매
채널A/탈북간증

특별찬양: 소프라노 최정원

Metropolitan Opera National Competition
LA District Winner,
West Regional Encouragement award
중앙음악콩쿨 1위, KBS 신인음악콩쿨 1위
Placido Domingo Operalia Quarter Finalist



생생한 탈북간증 및 증언: 김아라

탈북자매, 채널A 탈북간증



■ **주관:**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KCC Missions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 **참가문의 및 안내:** UTD 선교 행정 본부 (TEL: 949.297.3788) 24196 Alicia Parkway, Suite E, Mission Viejo, CA 92691
■ **이메일:** utdkcc@gmail.com / 홈페이지: www.kccnk.org

■ 통곡기도회 개최를 원하시는 교회들은 UTD 선교 행정 본부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TEL: 949.297.3788)
■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UTD 선교 행정 본부로 전화 (TEL: 949.297.3788) 주시거나 홈페이지 후원방법 안내를 참조 해 주십시오